

국민 참여 교육과정 개정 방안 논의

전주비전대-연성대 공동 포럼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해야” 주장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 영도 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상황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 실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요구하기로 심의·결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협의회 손동민 정책과장이 발제했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화, 교육과정 설계 시 국민이 참여하는 상황식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현 규정에 의하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기간 중에는 85% 복직후 6개월 이후 15%를 합산 지급토록 돼 있다.

상을 공급하고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70,000원씩 지급되는 읍면동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과 금액 등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계층·지역·세대·문화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평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운영학교 학교급간 교사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교급간 교사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은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으며, 본래 목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의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는 3월 현재 전국 113개교에 이른다. 최교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중 유

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보건교사, 돌봄인력 등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나머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우선 접종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현장 중심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총회는 5월 13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19일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연성대학교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과 LINC+ 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며 “과거 연성대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연성대만의 차별화된 입시-취업 윈스톱 플랜, 혁신적인 대학홍보디자인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순직 총장, 문용규 부총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최승훈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취업지원처 박심훈처장, 국제교류원 이호숙원장과, 권민희 총장, 입학홍보처 권귀석 처장, 대외협력단 박지영 단장, 산학협력단 김진배 처장, 학생취업처 이현호 처장, 교수학습센터 이경은 센터장, 입학홍보처 이희성 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홍 총장은 “오늘 전주비전대의 입시전략, 교육부 발표 2020년 전국 취업률 1위 달성 전략, 미안파, 배트남 등의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대학으로의 성장 등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이날 포럼을 통해 ▲2020학년도 입학현황, ▲취업 현황 및 취업성공 전략 공유, ▲글로벌 협력 및 유학생 관리현황 등에 관해 공유했다. 홍순직 총장은 “연성대학교는 수도

권민희 총장은 “근래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대학입학정원을 충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데, 전주비전대학교를 보면 꼭 그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 지역의 특별한 생선전략들이 앞으로 대학간 격차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 장학관 토론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22일 5층 회의실에서 장학관 22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학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모사업 업무개선과 새학년 공문 및 회의 최소화 방안 ▲교육정책 연구용역 ▲전체 협의를 통한 정책 과제 발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공모사업 관련 행정업무경감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 학교여건과 상황에 맞는 공모사업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역사이해 자료 제작

'전라북도 사람들이 만들어 온 우리 역사' 편찬... 3월 중 학교 보급 예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중등역사이해자료를 새롭게 제작했다.

지난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람들이 만들어 온 우리 역사'를 편찬, 3월 중 도내 중·고교 및 지역교육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역사이해자료는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전라북도 근현대 인물 이야기'에 이은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은 인물들의 업적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실록을 지킨 전북사람들'을 시작으로 ▲전라도 대동법 시행의 주역 김옥 ▲토지 문제를 바로잡으려 한 실학자 유형원 ▲전라북도 3·1운동을 이끈 김병수와 김승옥 ▲독립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장현식 ▲일제강점기의 '변호인' 김병로 ▲전북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4·19혁명의 도화선 남원사감 김주열 등 26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각 주제 서술은 전북지역의 역사뿐 아니라 한국사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현장 수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 '최우수'

전주대학교는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연차평가에서 A(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원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역량 신형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10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운영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대학 전체 차원의 창업생태계 구축 등 인프라 기반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올해 사업비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

한 12억 41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StartupJ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고-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업무 협약

전주공업고등학교는 19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중 '집수리 봉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전주시에 노후된 주택에 대해 전주공고는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전문기능을 통해 수리하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대상 가정을 선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윤홍진 교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자신의 전공을 통

해 봉사하고 실무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며 “교육협력 기반 구축에 도움을 준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윤홍진 교장, 문상일 교무교감, 김승호 생활교감, 박상기 전기과 부장, 하상표 특성화부장, 봉사활동 참여 학생 대표 김창대, 박희성 등이 참석했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오은주 센터장을 비롯해 박은가 사무국장, 김민영 팀원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